

01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채 지 영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 차

I. 영상문화 향유의 지역간 격차

II.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작은영화관 건립

III. 작은영화관 사업의 효과

IV. 작은영화관 사업의 보완점

I. 영상문화 향유의 지역간 격차

1. 영상문화 향유의 지역간 격차

■ 영화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 심화

-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 영화매출의 49.9%를 차지함
- 충남의 경우 영화관 수 4.9%, 스크린 수 3.9%, 좌석 수 3.2%, 매출 3.6%에 불과함
- 전남의 경우 영화관 수 3.4%, 스크린 수 3.2%, 좌석 수 2.8%, 매출은 1.9%
- 제주의 경우 영화관 수 1.1%, 스크린 수 1.2%, 좌석 수 1.0%, 매출은 1.0%
- 영화향유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영화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 심화

-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상영 시설과 그에 따른 관객 집중 현상이 되풀이 되면서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는 상대적인 문화 소외 지역으로 남게 됨

2. 장르간 격차



5

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6

1. 작은영화관 현황

작은영화관의 시작

- 2010년 전북 장수군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작은영화관이 기초가 되어, 2013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함

작은영화관의 지속적인 증가

- 2016년 상반기에 21개까지 증가하였고, 2017년 현재 총 27개가 개관하였음
- 향후 총 100여 개에 이르는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에 작은영화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작은영화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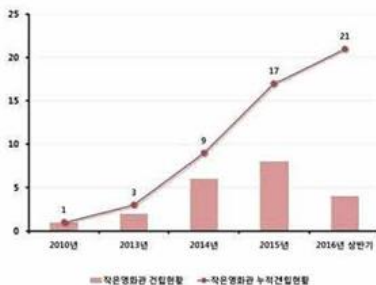
작은영화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에 기여함

-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 2만~10만 명 미만의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에 상설 상영관 조성
- 지역 영화 향유권의 격차를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꾀함
※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서울 6회 vs. 전남 2회

7

1.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작은영화관 연도별 건립 현황 및 전국 분포도



8

1.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번호	지역 구분		극장 명	인구 (2016년 기준)	설립 연도	관수	전체 좌석수	관별 좌석수
	광역시·도	시군						
1	전라북도	장수군	한누리시네마	23,254	2010.11	2	90	36/54
2	전라북도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88,347	2013.09	2	99	65/34
3	전라북도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29,306	2013.09	2	94	39/55
4	강원도	홍천군	홍천시네마	70,019	2014.04	2	98	57/41
5	전라북도	무주군	산골영화관	25,030	2014.06	2	98	57/41
6	전라북도	고창군	동리시네마	59,767	2014.06	2	93	62/31
7	전라북도	부안군	마실영화관	57,184	2014.08	2	99	54/45
8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휴시네마	95,496	2014.10	2	90	36/54
9	강원도	화천군	산전어시네마	26,702	2014.12	1	125	-
1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작은영화관	67,646	2015.02	1	87	-
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골 작은영화관	26,156	2015.07	2	98	55/43
12	강원도	영월군	영월시네마	40,038	2015.08	2	146	47/99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알프스시네마	219,225	2015.10	1	109	-
14	전라남도	장흥군	장남진시네마	40,884	2015.10	2	99	60/39
15	강원도	평창군	평창시네마	43,256	2015.12	2	97	55/42
16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시네마	34,454	2015.12	2	97	53/44
17	전라북도	순창군	전재의공간 영화상점	29,368	2015.12	2	149	101/48
18	충청남도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56,429	2016.01	2	154	59/95
1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작은영화관	68,181	2016.02	1	89	-
2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작은영화관	17,764	2016.03	1	99	-
21	경상남도	남해군	보물섬시네마	45,479	2016.03	1	212	-
8개 광역시·도의 21개 시·군						36	2,322	

9

1.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작은영화관 건립비 현황

- 21개 작은영화관 평균 건립비는 약 13억 원
- 건립비는 매년 증가함 (수정평균 기준)
 - 7억 원(2010년)→8.37억 원(2013년)→8.42억 원(2014년)→9.3억 원(2015년)→14.5억 원(2016년)
- 10억 원 이상 건립비가 드는 영화관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20% (1개소/5개소) ⇒ 2015년 62.5% (5개소/8개소) ⇒ 2016년 75% (3개소/4개소)
- 신축인 경우, 40억 이상의 건립비가 소요됨 (영월 44억, 순창 45억)

연도	건립비	총액	평균	수정평균	비고
2010년	장수 7억	7억	7억	7억	
2013년	김제 10억, 임실 8.9억, 완주 6.3억	25억	8.37억	8.37억	
2014년	홍천 7.8억, 무주 8.4억, 고창 7.5억, 부안 8.4억, 화천 10억	42억	8.42억	8.42억	
2015년	강화 9억, 진안 18.1억, 영월 44억, 울주 10.4억, 장흥 12.7억, 평창 7억, 고령 8.3억, 순창 46억	155억	19.4억	10.9억	영월, 순창 제외 (신축)
2016년	서천 20억, 고흥 11.5억, 영양 2억, 남해 12.1억	34억	11.4억	14.5억	영양 제외 (기존시설 사용)
총 계		275.4억	13.1억	10.2억	

10

2.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개관 첫 해 매출 및 수익분석 (월평균 순)

지점(개관연도)	운영 개월수	매출	월평균 매출	지출	월평균 지출	순이익	월평균 순이익
영양(16.03.)	4	30,948,000	7,737,000	43,748,492	10,937,123	-12,800,492	-
임실(13.09.)	4	40,623,546	10,155,887	54,053,032	13,513,258	-13,429,486	-
광창(15.12.)	1	17,518,000	17,518,000	27,956,820	27,956,820	-10,438,820	-
화천(14.12.)	1	22,377,300	22,377,300	4,562,829	4,562,829	144,064	144,064
고령(15.12.)	1	22,674,000	22,674,000	38,686,019	38,686,019	-16,012,019	-
완주(14.10.)	3	81,150,000	27,050,000	70,651,121	23,550,374	10,498,879	3,499,626
무주(14.06.)	7	192,817,700	27,545,386	150,006,836	21,429,548	42,810,864	6,115,838
진안(15.07.)	6	174,722,440	29,120,407	149,463,620	24,910,603	25,258,820	4,209,803
남해(16.03.)	4	121,443,000	30,360,750	111,523,523	27,880,881	9,919,477	2,479,869
부안(14.08.)	5	159,128,510	31,825,702	164,457,881	32,891,576	-5,329,371	-
고창(14.06.)	7	229,609,780	32,801,397	187,130,007	26,732,858	42,479,773	6,068,539
장흥(15.10.)	3	105,241,300	35,080,433	102,789,119	34,263,040	2,452,181	817,394
서천(16.01.)	6	218,536,496	36,422,749	206,018,696	34,336,449	12,517,800	2,086,300
김제(13.09.)	4	163,000,000	40,750,000	153,561,000	38,390,250	9,439,000	2,359,750
통천(14.04.)	9	369,940,413	41,104,490	322,250,445	35,805,605	47,689,968	5,298,885
고흥(16.02.)	5	214,000,000	42,800,000	210,914,270	42,182,854	3,085,730	617,146
강화(15.02.)	11	477,344,300	43,394,936	371,011,770	33,728,343	106,332,530	9,666,594
영월(15.08.)	5	219,995,574	43,999,115	189,044,249	37,808,850	30,951,325	6,190,265
순창(15.12.)	1	54,142,500	54,142,500	52,760,239	52,760,239	1,382,261	1,382,261
총 평균	4.6	153,432,256	31,413,687	137,399,472	29,596,185	15,102,761	3,678,315

※ 장수는 2010년 개관하여 제외함

※ 올주는 매출이 일부분만 반영되어 제외함

11

2.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개관 2년차 매출 및 수익 분석 1 (월평균 순)

지점(개관연도)	운영 개월수	매출	월평균 매출	지출	월평균 지출	순이익	월평균 순이익
임실(13.09.)	12	269,636,825	22,469,735	243,351,599	20,279,300	26,285,226	2,190,436
고령(15.12.)	6	153,087,500	25,514,583	140,134,662	23,355,777	12,952,838	2,158,806
진안(15.07.)	6	164,039,000	27,339,833	157,196,165	26,199,361	6,842,835	1,140,473
순창(15.12.)	6	178,852,395	29,808,733	164,805,281	27,467,547	14,047,114	2,341,186
평창(15.12.)	6	182,965,000	30,494,167	176,817,585	29,469,598	6,147,415	1,024,569
무주(14.06.)	12	393,724,500	32,810,375	310,969,069	25,914,089	82,755,431	6,896,286
완주(14.10.)	12	440,859,500	36,738,292	408,638,858	34,053,238	32,220,642	2,685,054
장흥(15.10.)	6	221,095,000	36,849,167	196,741,315	32,790,219	24,353,685	4,058,948
부안(14.08.)	12	459,904,700	38,325,392	401,214,866	33,434,572	58,689,834	4,890,820
강화(15.02.)	6	245,182,400	40,863,733	202,660,167	33,776,695	42,522,233	7,087,039
화천(14.12.)	12	499,323,400	41,610,283	440,029,355	36,669,113	59,294,045	4,941,170
영월(15.08.)	6	258,999,300	43,166,550	235,216,374	39,202,729	23,782,926	3,963,821
통천(14.04.)	12	528,840,100	44,070,008	432,726,100	36,060,508	96,114,000	8,009,500
고창(14.06.)	12	549,061,681	45,755,140	466,522,834	38,876,903	82,538,847	6,878,237
김제(13.09.)	12	609,830,000	50,819,167	465,059,000	38,754,917	144,771,000	12,064,250
총 평균	9	343,693,420	36,442,344	296,138,882	38,564,285	47,554,538	4,688,706

12

2.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개관 2년차 매출 및 수익 분석 2 (월평균 순)

지점(개관연도)	운영 개월 수	매출	월평균 매출	지출	월평균 지출	순이익	월평균 순이익
임실(13.09.)	12	269,636,825	22,469,735	243,351,599	20,279,300	26,285,226	2,190,436
무주(14.06.)	12	393,724,500	32,810,375	310,969,069	25,914,089	82,755,431	6,896,286
완주(14.10.)	12	440,859,500	36,738,292	408,638,858	34,053,238	32,220,642	2,685,054
부안(14.08.)	12	459,904,700	38,325,392	401,214,866	33,434,572	58,689,834	4,890,820
강화(15.02.)	6	245,182,400	40,863,733	202,660,167	33,776,695	42,522,233	7,087,039
화천(14.12.)	12	499,323,400	41,610,283	440,029,355	36,669,113	59,294,045	4,941,170
통천(14.04.)	12	528,840,100	44,070,008	432,726,100	36,060,508	96,114,000	8,009,500
고창(14.06.)	12	549,061,681	45,755,140	466,522,834	38,876,903	82,538,847	6,878,237
김제(13.09.)	12	609,830,000	50,819,167	465,059,000	38,754,917	144,771,000	12,064,250
총 평균	11	444,040,347	39,273,569	374,574,650	44,442,117	69,465,695	6,182,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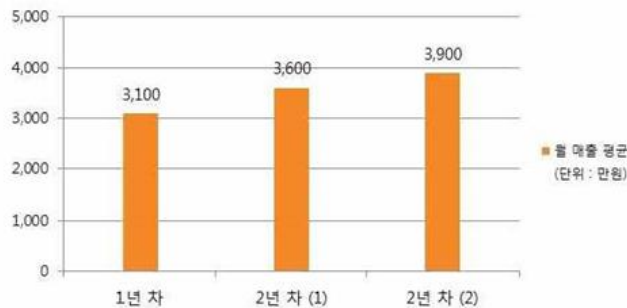
※ 개관 2년차라 하더라도 2015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2016년 6월까지 총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함

13

2.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개관 1·2년차 매출 및 수익 분석 3

- 개관 첫 해 차 월 매출 평균 : 약 3,100만 원
- 개관 2년차 월 매출 평균(1년 미만 운영점 포함) : 3,644만 원
- 개관 2년차 월 매출 평균 (1년 미만 운영점 미포함) : 3,974만 원
- 개관 첫 해 적자 : 영양, 임실, 평창, 장수, 고령, 부안 등 총 6개소
-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소는 개관 2년 차에 흑자를 기록함
- 향후 3년 차 이후 성장트렌드 분석 필요



14

2.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작은영화관 운영 분석

- 개관 1년차 이후 경영 안정기 진입
 - 총 19개의 작은영화관 중 14개소에서 운영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함
(개관 1년차 자료를 산출하기 어려운 울주와 장수를 제외하여 19개소 운영분석 하였음)
 - 영양, 임실, 평창, 고령, 부안 등 총 5개소의 작은영화관은 개관 첫 해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개관 2년차에 접어든 15개소의 작은영화관은 전부 흑자를 기록하였으므로 개관 2년차 부터 경영 안정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임
- 지속적 수익 발생
 -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임실을 제외한 모든 작은영화관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작은영화관 운영 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5

Ⅲ. 작은영화관 사업의 효과

16

1-1. 조사개요

조사 대상	• 작은영화관 이용객
조사 지역	•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조사 방법	• 1:1 대면면접에 의한 설문조사
유효 표본	• 총 유효표본 1,149명
조사 기간	• 2016년 9월~10월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람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람 장소, 거리, 시간, 횟수, 교통수단, 선택 이유 - 영화관람 시 하는 활동, 동행자 - 작은영화관 건립 전 후 영화관람 실태 비교 • 작은영화관 이용만족도 (만족, 추천, 재이용 의도) • 작은영화관 vs. 멀티플렉스 특성 비교 • 작은영화관 희망 시설 • 작은영화관 건립 후 삶의 변화 • Demo 요인(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17

1-2. 응답자 특성

- 성별 : 유효 1117(97.2%), 결측 32(2.8%)
- 연령 : 유효 1127(98.1%), 결측 22(1.9%)
- 직업 : 유효 1079(93.9%), 결측 70(6.1%)

구 분		사례 수	%	구 분		사례 수	%
전 체		1149	100	전 체		1149	100
성 별	남 자	485	43.4%	지 역 별	장수	60	5.2%
	여 자	632	56.6%		김제	59	5.1%
연 령 별	1 0 대	235	20.9%		임실	53	4.6%
	2 0 대	199	17.7%		홍천	50	4.4%
	3 0 대	216	19.2%		무주	50	4.4%
	4 0 대	256	22.7%		고창	60	5.2%
	50대 이상	221	19.6%		부안	59	5.1%
직 업 별	학 생	294	27.2%		완주	60	5.2%
	주 부	185	17.1%		화천	49	4.3%
	회 사 원	304	28.2%		강화	60	5.2%
	농업·임업·수산업	58	5.4%		진안	49	4.3%
	자 영 업	83	7.7%		영월	54	4.7%
	무 직	32	3.0%		울주	56	4.9%
	기 타	123	11.4%		장흥	51	4.4%
					평창	53	4.6%
					고령	49	4.3%
					순창	38	3.3%
					서천	60	5.2%
					고흥	55	4.8%
					영양	55	4.8%
					남해	6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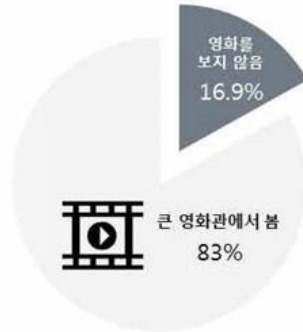
18

2. 영화 관람실태

작은영화관 건립 전 영화관람 장소

- 작은 영화관이 생기기 전 '가까운 멀티플렉스와 같은 큰 영화관에서 봤다'는 의견이 83%로 나타났으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6.9%나 되었음

	사례수	퍼센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음	191	16.90%
가까운 멀티플렉스와 같은 큰 영화관에서 봄	938	83.00%
N	1129	
유효 결측	20	



19

2. 영화 관람실태

작은 영화관 설립 전 · 후, 연간 영화 관람 횟수

- 작은 영화관 건립 전에는 연 1회~3회 정도 관람이 제일 많았으나(최빈치), 건립 후에는 연 10회 이상이 관람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작은영화관 건립은 영화관람횟수 증가에 기여하였음

구 분	설립 전		설립 후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1회~3회	379	33.3%	133	11.6%
4회~6회	256	22.5%	244	21.3%
7회~9회	141	12.4%	173	15.1%
10회 이상	229	20.1%	531	46.3%
모르겠다	132	11.6%	67	5.8%



20

2. 영화 관람실태

작은영화관 관람 횟수

- 작은영화관 관람횟수를 조사한 결과, '오늘 처음 방문'은 7.9%이며, 63.4% 이상이 재방문하였음
- 2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8.8회로 나타남

구 분	사례수	퍼센트
오늘 처음 방문	90	7.9%
2회 이상	725	63.4%
모르겠다	327	28.6%
N	1142	
유효 결측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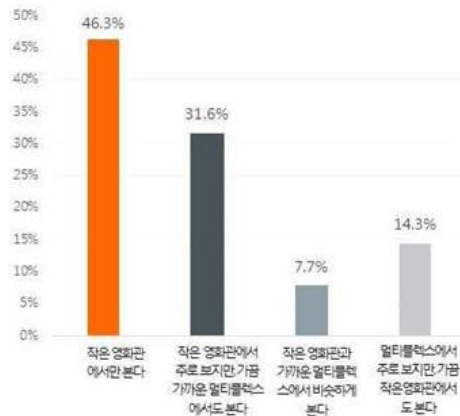
21

2. 영화 관람실태

주 영화관람 장소

- 현재 주 영화관람 장소는 '작은영화관에서만 본다'는 비율이 46.3%이며, '작은영화관에서 주로 보지만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도 본다'는 사람은 31.6%임
- 작은영화관이 주 관람 장소라고 답한 비율이 총 약 78%에 달함

구 분	사례수	퍼센트
작은 영화관에서만 본다	517	46.3
작은 영화관에서 주로 보지만, 가끔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도 본다	353	31.6
작은 영화관과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 비슷하게 본다	86	7.7
멀티플렉스에서 주로 보지만, 가끔 작은 영화관에서도 본다	160	14.3
N	1116	
유효 결측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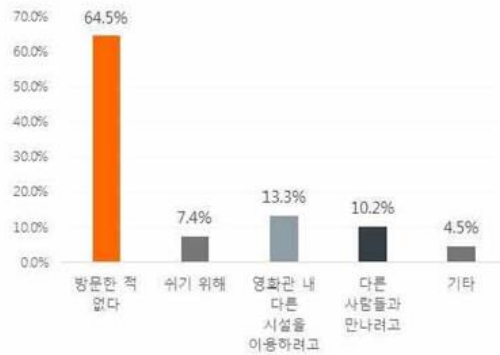
22

2. 영화 관람실태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영화관 방문 사유

- 영화관람 이외의 방문 목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4.5%가 '방문한 적 없다'고 답하였으나, 영화관 내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13.3%), 약속이나 모임 장소(10.2%), 단순히 쉬기 위해서(7.4%) 등 35%정도가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영화관을 방문하였다고 답함
- 이는 영화관이 어느 정도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 분	사례수	퍼센트
방문한적 없다	697	64.5%
쉬기 위해	80	7.4%
영화관 내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144	13.3%
다른 사람들과 만나려고 (약속·모임장소)	110	10.2%
기타	49	4.5%
N 유효	1080	
결측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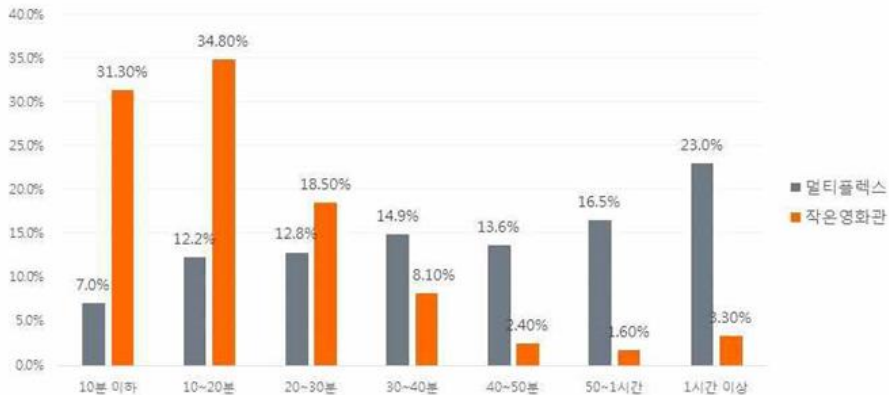


23

2. 영화 관람실태

영화관 접근성 (걸리는 시간)

- 멀티플렉스의 경우 40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53%가 넘으나, 작은 영화관의 경우 30분 미만이 약 85%에 달해, 멀티플렉스보다 작은영화관의 접근성이 우수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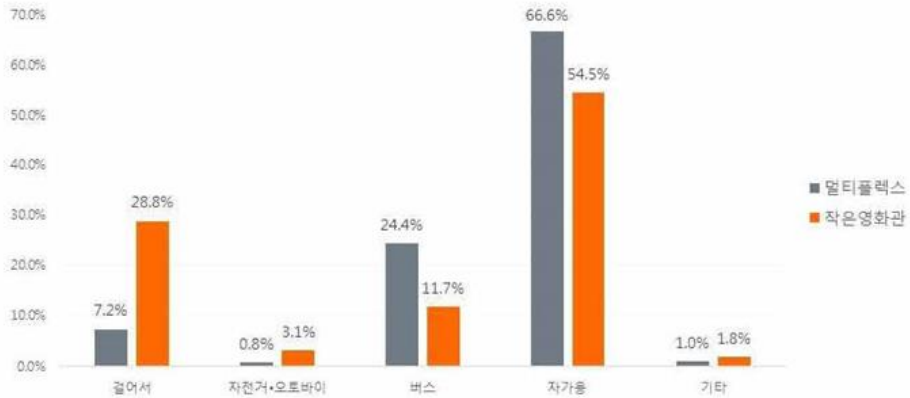


24

2. 영화 관람실태

교통수단

- 멀티플렉스의 경우, '자가용(66.6%)'과 '버스(24.4%)' 등 교통수단이 91%로 나타남
- 작은 영화관의 경우, '자가용'이 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걸어서'나 '자전거·오토바이'도 30%가 넘게 나타나, 작은영화관의 접근 편리성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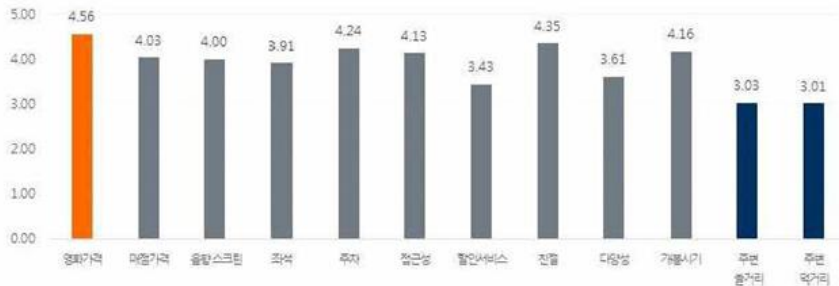


25

3. 영화관 만족도

작은영화관 항목별 만족도

-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영화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로 나타남
- '영화가격' 외에도 '매점가격'이나 '주차', '친절', '접근성', '개봉시기'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반면, '주변 놀거리(3.03)'나 '먹거리(3.01)'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주변 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줌
- '할인서비스'(3.43), '좌석(3.91)'이나 '음향 스크린(4.00)'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남
- '영화 다양성(3.61)'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1~2개에 불과한 상영관 수로 인한 결과로 보임



	영화가격	매점가격	음향 스크린	좌석	주차	접근성	할인서비스	친절	다양성	개봉시기	주변 놀거리	주변 먹거리
평균	4.56	4.03	4.00	3.91	4.24	4.13	3.43	4.35	3.61	4.16	3.03	3.01
N	1122	1109	1114	1115	1119	1114	1074	1115	1114	1113	1111	1109
표준편차	0.764	0.986	0.961	1.062	0.983	1.075	1.249	0.86	1.14	0.969	1.224	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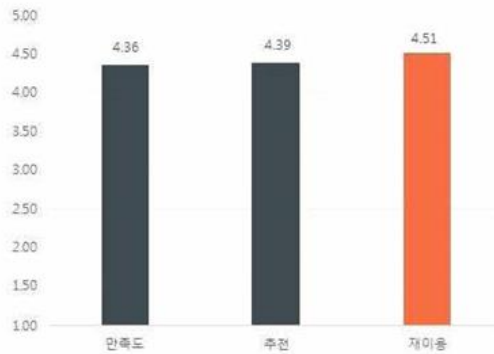
26

3. 영화관 만족도

작은영화관 이용 만족도

- 작은영화관의 '이용만족도', '타인추천의향', '재이용' 등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 '재이용(4.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천(4.39)', '만족도(4.36)'가 뒤를 이었음

	평균	N	표준편차
작은 영화관 이용에 대해 만족한다	4.36	1139	0.801
작은 영화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4.39	1131	0.774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작은 영화관을 또 이용할 것이다	4.51	1130	0.715



27

4. 영화관 특성 비교

작은영화관 vs. 멀티플렉스 특성 비교

- '티켓가격'이나 '매점가격' 등 가격적인 측면에서 작은 영화관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 '접근성'과 '주차', '친절' 등도 작은영화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개봉시기'도 멀티플렉스와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영화관 주변 놀거리'나 '먹거리' 등 주변 환경과 '영화의 다양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구분	작은영화관		멀티플렉스	
	N	평균	N	평균
영화가격	1,122	4.56	980	2.42
매점가격	1,109	4.03	969	2.43
음향 스크린	1,114	4.00	971	4.07
좌석	1,115	3.91	974	3.79
주차	1,119	4.24	973	3.20
접근성	1,114	4.13	971	3.15
할인서비스	1,074	3.43	963	3.50
친절	1,115	4.35	968	3.69
다양성	1,114	3.61	968	4.16
개봉시기	1,113	4.16	965	4.25
주변 놀거리	1,111	3.03	969	4.04
주변 먹거리	1,109	3.01	969	4.09

28

5. 삶의 변화

작은영화관이 가져온 삶의 변화

- 작은 영화관 설립 후, '여가 즐거움(4.25)', '관람빈도(4.24)'가 높아졌으며 '삶의 여유(3.95)'가 생기고 전체적인 '삶의 질(4.0)'도 높아졌다고 느낌
- 또한 작은영화관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발전'하였으며(4.12), 그에 대한 '자부심(4.01)'과 '소속감(3.94)'도 높아짐



29

5. 삶의 변화

소비자 만족도 분석 결과

- 높은 이용 만족도
 - 작은영화관은 이용 만족도, 재이용, 타인 추천 의향 등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중 재이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작은영화관 이용을 통해 여가의 즐거움, 삶의 여유가 증대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작은영화관이 지역사회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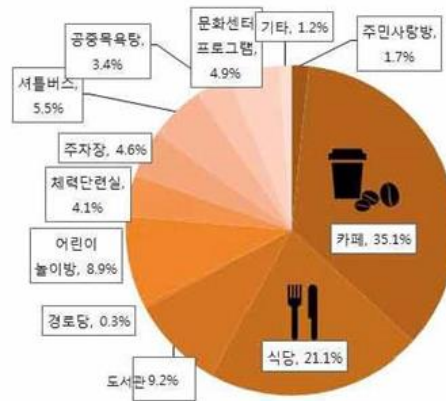
30

6. 작은영화관 희망시설

작은영화관 희망시설

- 작은 영화관에 함께 있으면 좋을 시설로는 '카페(35.1%)', '식당(21.1%)', '도서관(9.2%)', '어린이 놀이방(8.9%)', '서틀버스(5.5%)', '문화센터(4.9%)' 등이었음

구 분	사례수	퍼센트
주민사랑방	30	1.7%
카페	616	35.1%
식당	370	21.1%
도서관	161	9.2%
경로당	5	0.3%
어린이 놀이방	156	8.9%
체력단련실	71	4.1%
주차장	80	4.6%
서틀버스	97	5.5%
공중목욕탕	60	3.4%
문화센터 프로그램	86	4.9%
기타	21	1.2%



31

IV. 작은영화관 사업의 보완점

32

1. 컨립 시 유의점

Ⅰ 입지 선정

- 지역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이 높은 곳에 입지
-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 중요)
- 기초지자체의 중심에 위치
- 상권활성화 고려

Ⅰ 시설

- 작은영화관 건립은 지자체 관공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곳이 대부분임
- 영화관 건립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 지역 건축업자가 건립하여 문제가 발생
 - 좌석 간격, 냉난방시설, 환기, 동선, 조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경사 등 미비
- 영화관 건립은 영화관 시설 전문 건축업체에서 담당해야 함
- 비전문 건축업체일 경우, 조성과정에 필수적으로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함

33

2. 지역 일자리 창출

Ⅰ 인력 구성

- 작은영화관 운영 인력은 대부분 일용근로자(시간제)나 계약직임
- 21개관 작은영화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32%로 나타났으며 전원 정규직 고용한 곳(29%)과 전원 계약직 고용한 곳(32%)의 인건비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음
- 전원 정규직 채용을 운영 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를 의무화 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Ⅰ 지역 일자리의 질적 제고

- 또한 영사기사, 운영자 등은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야 함

34

3. 작은영화관 공공성 강화

Ⅰ 공공영화관으로서의 작은영화관 역할에 충실

- 작은영화관은 극장 부재 기초 지자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작은규모의 상설 영화관으로, 지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문화시설임
- 공공문화시설로서 작은영화관의 운영은 도시와 지역 간 영화 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Ⅰ 공공영화관으로서의 작은영화관 수익금 활용

- 작은영화관 수익금은 사적 회사의 수익금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작은영화관의 발전 및 지역문화발전에 활용되어야 함
- 수익금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35

4. 지역 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수익활용 방안

Ⅰ 수익 활용 계획 부재

- 2016년 상반기 운영결과 대부분의 작은영화관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나 수익에 대한 구체적 사용 계획은 1~2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임
- 21개 중 15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은 2014, 2015년에도 수익이 났으나, 수익 활용 내역이 거의 없음
- 2016년에도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음

Ⅰ 수익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공공영화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년도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함
- 또한 다음 해에는 수익 활용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수익 활용은 지역문화발전에 활용함을 기본으로 함

36

5. 작은영화관 영화부금의 문제

■ 민간시장의 사회적 기여로 형성된 작은영화관 티켓 가격

- 작은영화관의 티켓 가격은 영화배급사 부금을 100% 보장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책정된 가격이며(2016년 12월 초 현재 일반 영화단가의 69%만 지급하고 있음), 이는 현재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의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수용되고 있음
- 현재 작은영화관의 저렴한 티켓 가격은 민간 수익을 침해하면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작은영화관 소비자 가격 및 영화단가 설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 민간시장 침해가능성 증대

- 작은영화관의 가격과 시설 경쟁력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제고라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상업영화관의 관람객 및 수익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용 편리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역으로 지역의 작은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례 증가
- 민간 영화 시장 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7

5. 작은영화관 영화부금의 문제

■ 작은영화관 수익으로 인한 가격 재검토 요구

- 작은영화관의 수익이 증대되고 그 수익이 지자체의 세외수익 혹은 잡수익으로 처리되거나 위탁용역업체의 사적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희생으로 형성된 작은영화관 가격을 지속하기 어려움
- 작은영화관의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영화부금은 정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38

IV.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제언

39

- 영상콘텐츠는 지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기여함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술이나 전통문화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홀했음
- 새로운 정부에서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대 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영상콘텐츠는 상업시장이 존재하는 콘텐츠로서, 콘텐츠의 배급을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 시장을 침해하는 경우 정책의 지속·확대는 불가능함
- 따라서, 기존 시장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 영상문화향유권 제고 방안 필요
- 정책 실행으로 인한 수익은 절대로 개별 사업자의 사익이 되어서는 안됨
- 작은영화관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수익금은 작은영화관의 발전과 지역민 문화여가 발전에 활용되어야 함

40

한글

